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3·4 월호
1986 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권두언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끝낸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일하는 방법을 달리 하셨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긍휼과 능력이 많으신 것은 언제나 같으셨지만 그가 일하시는 방법은 때에 따라서 변화시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오늘날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구름기둥의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참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역시 움직이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했다(민 9:22).

그런데 오늘 세상에는 참지를 못 하고 구름기둥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떠돌아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

그저 어떤 사람은 무작정 이사를 간다. 그리로 이사를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 말씀기둥을 바라 보지 않고 무작정 떠난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서울로 오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인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곳에 내가 가서 산다면 거기에 정말 행복이 따르겠는가? 그러므로 구름기둥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데도 무작정 떠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나오미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가지 않고 육신의 밥을 따라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 불신의 땅 모압으로 가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세 과부만 남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어머님은 어린 링컨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주시며 "이 성경책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라"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링컨은 그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결과 그는 민주주의와 흑노의 아버지가 되었다.

후일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의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였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좇아 즉, 인생의 4계절인 소년시절, 청년시절, 장년시절, 노년시절, 시절마다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구름기둥인 말씀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구름기둥인 말씀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중심하여 살자.

한 해의 모든 계획을 활발히 추진하는 계절인 봄이 되었다. 성전건축 3차공사, 총동원 전도주일, 춘계부흥사경회… 모든 일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실천하므로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바란다.

주간 이 성 근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4권제2호
통권 제133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3·4월호

차 례

권두언/주의 인도하심 따라……주 간…2
이달의 말씀/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건축에 임합시다……김창인…4

특집 I 제3차공사 착공

· 지상중계/감사와 다짐속에 드린 예배……편집실…6
· 인터뷰/제3차공사
어떻게 진행시키려 하는가……편집실…8
· 기도문/금년 성탄축하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하시옵소서……임광식…10

특집 II 부활절

· 논단/부활절의 현대적 의의……정성구…11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사도신경총론 II……임종만…14
교육논단/바울의 교회교육관……조영길…16
충현칼럼/소에게서 배운다……김원남…18
특별기고/순교자 조용학 영수……조인제…19
독자 시/부활과 삶……김연이…22
독자의 수필/추억……안유향…23
선교소식/인도에서 온 편지……엘리야 겔간…24
신앙상담/십일조 생활에 관하여……김창근…26
추천도서/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김익경…27
교회소식……편집실…28
교우동정……편집실…31
3·4월의 행사·편집후기……편집실…34

□ 표지 사진 설명 □

3차공사. 얼마나 바라던 것인가! 4월8일(화) 오후 3시였다. 본당 골조공사 자리에 임시 예배처를 마련하여 제3차공사 착공예배를 충현교회 성도들과 흥화공업주식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중에 드려졌다.

전주일 교회에서 전체광고가 되지 않은채 4월7일 저녁 3차공사 계약체결되어 착공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소식은 십시간에 퍼져 1,100명이 모였다.

이달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건축에 임합시다

잠언 22장 1-21절

김 창 인
(목사 · 당회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 22:1)

사람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옷을 입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까?

환경이 좋은 곳에 터를 정하고 설계를 잘 하여서 우수한 자재를 구입하여 유명한 건축사들이 정성을 다하여 지은 집이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중에 건축을 해야 사고없이 웃으면서 일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셔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일하는 분들의 건강이 유지되야 일을 잘할 것입니다.

땅 위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면 어떤 집이겠읍니까?

첫째로, 좋은 집은 주인이 훌륭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도 좋아야 하고 살기도 편해야 될 것이지만 그보다는 누가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존귀함이 달라집니다. 임금님이 사시면 오두막집이라도 궁궐이라 하고, 도적이 살면 금은보석으로 꾸몄어도 그 집은 도적놈의 소굴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겠읍니다.

둘째로, 좋은 집은 목적이 좋아야 합니다. 이 장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충현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라에는 등대가 되고 후손들에게는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충현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선한 일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보기만 하는 구경꾼은 없기를 원합니다. 필요없는 말을 하는 말꾼도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세상에는 방해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충현교회 안에는 방해꾼은 물론 말꾼도 구경꾼도 없고 너도나도 일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복을 빌겠읍니다.

첫째로, 부자가 되는 복을 빌겠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건축을 맡아 수고해 주실 흥화공업주식회사의 직원들과 직접 현장에서 땀흘려 수고하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육신 면에서도 부자가 되고 건축헌금을 바치는 모든 교인들도 다 영육에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칭찬듣는 복을 빌겠읍니다. 현장에서 일하실 여러분과 헌금을 바칠 온 교우들은 칭찬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일을 맡겼더니 건축을 너무도 잘 했다고 자손만대가 칭찬할만한 공사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크나큰 성전공사를 위하여 헌금을 바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고 헌금을 바쳤으니 잘 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째로, 생명의 복을 빌겠읍니다. 이 공사를 맡아 수고하시는 여러분이나 성전건축을 위해 헌금을 바치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들이 튼튼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또한 사고없이 일이 잘 끝나도록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명만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 건축공사에 와서 일하는 분 가운데는 꿈에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땅 위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복을 받기 위하여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공사에 참여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건축에 임해야 합니까?

첫째로, 명예가 귀한 줄 알고 건축에 임해야 복을 받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돈이 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신용이고 존경을 받을만한 명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 "아무개는 신용있는 분이야"라는 칭찬과 존경을 먼저 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생명의 복까지 주시기로 약속하셨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고 건축에 임해야 합니다. 금은 보배 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읍니다. 은덩어리도 좋고 금덩어리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빼앗아 갈 사람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자가 없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 없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귀한 줄 알고 건축에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세째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건축에 임해야 합니다. 이 큰 성전공사를 할 때에 아차 잘못하면 큰 사고를 낼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하는 분들이 발 한 걸음을 옮겨 놓는 것과 손 한 번 휘두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하시는 분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이 큰 성전공사를 할 때에 조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읍니다.

네째로, 겸손한 자세로 건축에 임해야 복을 받습니다. 충현교회는 큰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는 훌륭해'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에도 교만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 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

이렇게 하신 것 뿐입니다. 휴전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지을 꿈도 꾸지 못 하고 무신론 공산당에게 억압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것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좋은 터 위에 회사와 손을 잡고 3차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계약을 했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사의 여러 직원들과 충현교회의 성도들은 꿈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조심할 줄 모르고 겸손한 사람은 조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게으르지만 겸손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은 조심하고 부지런하며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라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섯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건축에 임해야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무서워 떨지 말고 하나님만 무서워 떨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한 말이 있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가격으로 계약은 했는데, 담당 건축회사가 이 성전공사를 잘 하므로 복을 받아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일감을 주시어 한국의 건축업계에서 3위 안에 드는 큰 회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읍니다. 또한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해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마침내 한국의 모든 국민 앞에 존경까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육신의 생명은 건강하여 장수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 제3차공사 착공예배 지상중계

감사와 다짐 속에 드린 예배

편 집 실

1986년 4월 8일 오후 2시가 지났을 무렵 전체 광고가 안 되었는데도 전화로 전해들은 성도들이 삼삼오오 사방에서 몰려들어 본당 안 임시예배처에 모이고 있었다. 제3차공사 착공예배! 얼마나 기다렸던 것인가. 새성전 신축부지 마련하며 기도해온 지 16년, 제1차공사 착공으로부터 6년, 제2차공사 완료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후3시. 어느새 1100회중이 운집한 가운데 사회자 김창인 목사님의 개회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충현교회 성도들이 제3차공사 성전 건축을 위한 감사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이 묵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의 성시봉독과 함께 사회자의 짤막한 기원이 뒤따른 뒤 찬송가 455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힘차게 합창했다.

잠시후 건축위원장 임광식 장로님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온 교회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3차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 특별히 홍화공업주식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공사를 맡을 마음 주신 것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금년말에는 본당에서 성탄축하예배 드릴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0페이지 임광식 장로님 기도문 참조) 기도내용 한마디한마디가 전 성도들의 기도인양 아멘의 연속이었다.

당회장 김목사님이 잠언 22:1-21을 낭독하셨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다시 짤막한 설교전 기도가 있은 뒤 말씀 선포가 시작되었다. 새성전건축하는 긴긴 날 동안 당회장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헤아릴 수 있을까? 오늘따라 목사님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심정을 읽게 하는 것만 같다. 깊은 감격 그것이었다.

설교 중에서 목사님은 집은 목적이 좋아야 한다는 대목에서 "이 장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충현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라에는 등대가 되고, 후손들에게는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충현교회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되고, 말꾼이 되어서도 안되고, 더우기 방해꾼이 되어서도 안되며, 너도나도 일꾼이 되어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촉구하셨다. 그리고 나서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과 3차공사에 참여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건축에 임하는 마음가짐에는, 첫째는 명예가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아야 하고, 세째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네째로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하며, 다섯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건축에 임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셨다(목사님의 설교 전문은 4-5페이지「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건축에 임합시다」 참조).

메시지를 마치시며 목사님은 다시, 3차공사가 56억이라는 큰 공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재하시면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희생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셨고, 시공업체 흥화공업을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뒤이어 건축위 부위원장 최석주 장로님의 공사경과보고가 이어졌다. 1970년 11월 새성전 신축부지 9천평을 매입했고, 80년 4월 제1차 공사를 정우개발주식회사에서 맡아 82년 8월 완료했고, 82년 9월 제2차 공사를 남도건설주식회사에서 맡아 84년 4월 완료했고, 같은해 4월현 교회로 이전했고, 85년 4~11월에 부대공사를 완료했으며, 86년 4월 7일 제3차공사를 흥화공업주식회사와 체결, 다음날인 오늘 착공하기에 이르렀다는 보고였다.

다음 순서로 새로 공사를 맡게 된 흥화공업주식회사의 최명환 사장님의 인사말이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업자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충현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위해 우리들의 힘을 모아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현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섰읍니다. 또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섰읍니다. 또 하나는 먼저 하나님나라에 가신 고 양춘선 장로님의 유지를 받들므로 우리들 후예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을 준공해서 하나님께 헌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같이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완공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7백명 흥화공업 전 사원은 일치단결해서 성전건축을 소기의 기일 안에 완공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읍니다." 최사장님의 믿음직스런 말씀이었다. 듣는 성도들의 가슴마다에는 쌓였던 감격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당회를 대표해서 서기 이응선 장로님의 광고말씀이 있었다. "제3차공사를 착공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제3차공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흥화공업주식회사 최명환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을 비롯해 전 교역자님과 당회원, 제직, 온 성도의 기도와 정성어린 건축헌금으로 제3차 공사가 이뤄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후 흥화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시는 기념타올 선물도 있읍니다."

헌금 순서가 따로 없었는데도 3차공사 시작에 대한 감사헌금봉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참 이어졌다. 감사 감격의 분위기가 휩쓸고 있었다.

찬송가 23장「만입이 내게 있으면」을 힘차게 부르고, 착공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의 축도로 역사적인 제3차공사 착공예배가 마쳐졌다.

예배는 오후 4시 전에 끝났으나 회중들은 즉시 흩어질 줄 몰랐고 손에 손을 잡으며 감사와 다짐 속에 완공되는 새성전을 저마다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제 3 차 공사 어떻게 진행시키려 하는가

편 집 실

4월 7일 저녁 제3차공사 계약체결후 이튿날인 8일 오후 착공예배를 드렸다. 제3차공사-어떻게 진행시키려 하는가? 이 궁금한 문제를 위해 편집위원회에서는 건축위 부위원장이며 재정위원장인 최석주 장로님을 긴급 초청,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 : 이번에 수고가 많았읍니다. 제3차공사에 임하면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소감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최장로 : 한 마디로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2차공사후 교회 사정상 중단되었었지요. 우리가 84년 4월 강남 이곳으로 이사와서 86년 4월이 되었으니 꼭 2년이 되었읍니다. 작년에 주차장 시설 등 부대공사를 좀 했읍니다만, 아뭏든 3차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온 교회가 새성전 건축에 관심이 지대하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있읍니다.

문 : 3차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최장로 : 홍화공업주식회사입니다. 상당히 실력있는 건설업체로 잠실종합체육관의 골조공사에서 일을 많이 한 회사입니다. 우리교회 안수집사인 최명환 집사님이 사장님이시고 또 그분은 고 양춘선 장로님의 사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박봉주 권사님의 아드님이 그 회사의 회장님으로 계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며칠 전 착공예배시 최사장님의 인사말 속에서도 들었듯이, 하나의 업주보다도 충현교회 한 성도로서 자기 교회를 짓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우리교회와 힘을 합치면 이번 3차공사는 잘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 제3차공사의 내역은 무엇이며 공사개요 등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로 : 본당공사로서 ① 내장공사와 ② 외장공사 ③ 종탑공사로 구분지을 수 있겠읍니다. 금년말에는 기어코 본당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게 내장공사에 역점을 두고 종탑공사도 함께 시작할 계획입니다. 외장공사인 돌붙이는 공사는 87년도말에 마감하도록 했었으나, 공사에 왜 많은 시간과 세밀한 공정을 요하고 때우 단단하게 붙여야 되는 난공사로 위험하고 조심스러워 제일 추운 겨울철에는 공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원래의 계획을 수정 88년 6월까지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술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 : 그러면 금년에 계획된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정하고 있읍니까?

최장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장공사만은 완전히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호공사, 그 주변에 돌붙이는 공사는 끝내주어야 내부의 창호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그 다음 앞부분 출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돌계단공사도 하고 종탑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외장공사는 하는 데까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문 : 내장공사가 끝남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한 음향공사, 조명공사 등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최장로 : 그 준비는 내장공사와는 별도계획입니다. 내장공사 마무리를 할 때 음향공사, 조명공사를 같이 하여야 되고 그다음 의자를 놓는 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차공사 개요를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최석주 장로.

온 교회의 기도와 성원 속에 좋은 건축업자도 선정되었읍니다. 금년에는 성전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문 : 3차공사 기간을 밝혀주시고 이 공사를 위한 예산책정은 어떠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최장로 : 마무리공사까지 하려면 88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달부터 따져서 2년 2개월 정도됩니다. 한편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홍화공업과의 계약과 그 외에 전기공사, 음향공사 등을 합하면 60억원 정도 됩니다.

문 : 금년 공사계획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재정적 뒷받침은 어떠한지요? 건축비 조달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최장로 : 금년 우리교회가 성전건축을 위한 특별비로 25억원을 책정했지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건축헌금에 힘써왔읍니다만, 이 달말에 있을 부흥회 때에 월정으로, 십일조 외의 십의이조 작정해 보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밖에 더 좋은 방법을 연구중에 있읍니다.

문 : 본당을 건축함에 있어서 특색이라면 어떤 것이겠읍니까? 또 후손에게 남길 만한 문화적 유산이 되도록 신학적 선교적 예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읍니까?

최장로 : 본당을 밖에서 볼 때 전통적 고딕건축양식을 띤 건축물로 보일 것이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린 조명이며 음향이며 냉난방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두개의 종탑도 특색이라면 특색이지요. 왜 높은 두 종탑은 사면 다 화강암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돌집이란 별명이 붙을 만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100년에 많은 부흥을 했고 큰 교회 큰성전들이 늘고 있는데, 웅장하고 아름다울 우리의 새성전도 100년후를 내다보며 건축하는게 아니겠읍니까. 교회가 크면 책임도 커야 하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큰 교회당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년 이상을 사용할 훌륭한 예배당을 지을 때 후손들에게 또는 문화재로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예술적인 면도 고려하면서도 현대감각으로 유행이 쉽게 바뀌는 그런 건축미가 아닌 고대와 현대를 잇는 그런 미(美)라고 할까요. 요즈음 교회들에서 강대상에 예술적으로 이런저런 조각을 해넣는다든지 유리로 색채를 처리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는 철저한 칼빈주의에 의한 전통적인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고수하며 처리하려고 합니다.

▼ 인터뷰하는 모습 : (왼쪽부터) 최석주 장로, 김차생 장로, 조선근 장로, 조현명 장로 (뒷모습)

문 : 이 시점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로 : 온 교회의 기도와 성원 속에 좋은 건축업자도 선정되었읍니다. 금년에는 성전이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교회 전체가, 모든 가정이 기도하고 힘을 합쳐 협력하고 물질도 바치고 정성을 쏟아야만 3차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 크나큰 일을 건축위원회 몇 사람한테만 맡기지 말고 당회장 김목사님의 말씀처럼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청됩니다. 시공업체인 홍화공업주식회사를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건축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온 성도가 새성전 완성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사진행과정을 건축위원회 홍보부를 통해 자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집위원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장로 : 감사합니다. *

금년 성탄 축하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하시옵소서

임 광 식
(장로 · 건축위원장)

하나님 아버지 ! 그동안 온 교회가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3차 공사 착공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착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일찌기 저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죽었던 죄인들이지만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크고 웅장한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기회와 복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온 교회가 신실한 업자를 보내주시도록 애타게 간구하던 중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이 계셔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 박봉주 권사님 가정에서 경영하는 흥화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공사를 맡아 사장되시는 최명환 집사님의 지휘로 진행시키게 하신,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흥화공업주식회사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공사를 맡을 마음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크나큰 3차 공사는 마무리 공사가 되어, 모든 면에 조심하고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공사입니다. 내장공사, 외부 돌붙이기공사, 종탑공사로 구분되옵는데, 내부공사는 우리들의 예배처소가 될 거룩한 전이옵고 이를 위한 음향공사, 조명공사, 냉난방공사를 시행하는 데에는 고도의 기술이 요하고 정밀한 기계가 많이 동원되는 것이어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종탑공사는 지상에서 80미터 높이에 무거운 강철을 사용해야 되는 난공사이고, 돌붙이는 공사도 높이 50미터까지 돌을 짊아올리는 난공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기술만 가지고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오며 이 공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튼튼하게, 더 빠르게 완결되도록 크신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만나를 주시며 바위 속에서 샘물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3차 공사를 시작한 저희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적과 기사로 추진되게 해주시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며, 금년 말에는 본당에 들어가서 성탄축하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차공사가 끝날때에 이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차고 넘치게 해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곳은 어두움과 죄악 세상에서 헤매는 불쌍한 생명들에게 성령의 불을 비추는 등대역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노아방주에 들어간 식구들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88년도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 이곳에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뜨거운 은혜를 받아 그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영육간에 복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이 기도문은 4월 8일 제3차 공사 착공예배 때 행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주〉

부활신앙의 현대적 의의

정 성 구
〈총신대학 학장〉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부활소망도 없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지적할뿐 아니라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로 선언되었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사실을 근본적이요,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 것으로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가장 분명한 시발점과 가장 분명한 해석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적의 종교인데 그리스도 부활의 이적은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중심이며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교리는 변두리의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부활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으므로 반기독자들의 공격이 부활에 집중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어진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서 몇가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의의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타당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후에 실망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읍니다. 그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동행했으나 저들은 알지 못하였읍니다. 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24: 25-26)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한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인간이 파놓은 돌무덤에 머물 수가 있겠는가 함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함입니다.

그는 빛인데 어떻게 어두움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함입니다. 그는 생명인데 어떻게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함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의 생애의 완성이었읍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확인입니다. 동시에 그

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초자연의 확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간임과 동시에 초자연적 인간이었읍니다. 메이첸(G. Machen) 박사의 말과 같이 자유주의는 예수를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꽃으로 보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그를 초자연적 인격으로 봅니다. 초자연적 인격으로서의 예수관은 신약성경을 통하여 흐르고 있읍니다. 자유주의는 예수를 모범과 교도자로 보며,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읍니다. 자유주의는 그를 신앙의 모범으로 하며,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초자연의 수락을 의미하며, 초자연의 수락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요, 구속의 절정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한에 있어서 그의 부활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데니」는 말하기를 "만일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의 정직이 문제가 될것이다. 복음서가 말하는 부활은 보통 인간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즉 그의 생애와 인격이 유일무이하였으며 그의 치욕된 죽음에는 아무 적당한 설명도 생각할 수 없는 오직 부활이 있을 뿐이다"고 하였읍니다.

또 「로빈슨」은 말하기를 "그렇게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신령한 생애의 마지막이 죽음이었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선에 대한 악의 영원한 승리, 즉 세상에서는 진리나 정의를 믿을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한개의 고립된 사건, 즉 기독교 사상에 다른 사건과 분리된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제임스 올」의 말처럼 "부활은 이에 앞선 모든 일과 밀접하게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사실 전체와 완전히 부합되는 그리스도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예언성취로 된 것임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약속성취로 되어진 것입니다. 즉 그것은 계시종교의 특징인 약속성취로 되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바로 계약 또는 약속의 종교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모든 자율주의의 종교, 특히 자연신론이나 범신론자들은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구약에서 메시야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읍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읍니까?

그것은 구약 시편 16장 10절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볼 수 있읍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의 설교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읍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면서 시편 16장 10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며, 예수의 부활은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하였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혔읍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므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고 하였읍니다. 부활이 다윗에게는 소망이었으나 그리스도에게는 성취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라고 부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역시 하나님의 작정임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약속한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을 예언하신 사실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께서 명백히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그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실 때면 "인자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성경은 너무나 많으며, 이것은 또한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주장 가운데 본질적인 것들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마 16:21) 라

고 하셨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읍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셨읍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므로 모든 믿는 자를 또한 부활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과 연결되어진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의 약속 성취이자 자기 자신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역사적 사건

기독교는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관적 사색의 종교가 아니라 객관적 부활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하였읍니다. 진정한 부활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힘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였읍니다.

그 불길은 드디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읍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의 전후의 상황을 살펴 봅시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아침에는 무덤이 비어져 있었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혹자들은 기절설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묘안에 불과하지만 이런 학설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유주의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돌을 굴려 놓았고 무덤은 인봉하였으며, 무덤앞에는 수직하는 군인들을 세웠읍니다. 그런데 사흘후 아침에 시체는 없어지고 빈 무덤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뿐입니다. 그의 시체를 무덤밖에 나오게 한 것은 인간의 손이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인간의 힘이었다면 그의 친우이거나 그의 원수일 것입니다. 만약 친구라면 돌 인봉, 그리고 파숫군 앞에서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만일 원수라면 그런 어리석은 짓, 즉 제자들에게 유리한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 후 몇 주일이 못되어 베드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였읍니다.

신약의 모든 책은 사실에 있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거나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초기 사도가 행한 설교의 특이한 양상은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행위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계속 언급되고 있읍니다. (행 2:24)에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고 하였고, (행 2:32)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고 하였고, 또 (행 5:30)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하였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오늘이 존재한 유일한 적당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전 15:3-4)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읍니다. 앞서 말한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성취인 사실을 말하였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보게됩니다. 성경을 믿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부활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못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고난도, 속죄도 못 믿게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지나치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무슨 해답을 얻고자 노력하거나 종교현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었으니만큼, 성경도 참되고 성경이 참이므로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도 진실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 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의 부활은 성도들을 의롭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칭의와 중생과 성도들 자신의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 교회의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부활신앙에 든든히 서서 가까이는 이웃에게, 멀리는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와 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과 신학을 가진 자의 사명은 무겁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총론 II

임 종 만
(목사 · 북서울교회 시무)

3. 사도신경을 쓴 동기

(1) 초신자들이 입교하려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었다 (마 28:19). 여기에 대해 맹목적으로 또는 형식 정도로 받기 쉬웠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가르쳐서 지적 모순성이 없는 신앙고백을 하게 하려고 이 신경을 정했을 것이고

(2) 또 사도들이 별세한 후, 교회안에 여러가지 이단교리를 전하는 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른 신앙고백문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박윤선목사는 말하기를 "교리의 필요는 무엇인가? 기독신자들 가운데는 교리를 중대시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리가 나타날 때에는 논쟁이 나오고 교회의 분열위험이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도 없고 죄악도 없는 무사기한 에덴동산 같은 데서나 주장할 생각이다. 복음에 반대하는 주장이 복음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일이 확실한 이 죄악세상에서 바른 주장을 아니 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다. 이제 교리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것은 교리들이 하나 하나 나타나게 된 이유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한 동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 4세기 (325년)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중대한 교리로 선포한 니케아회의가 아리우스의 이단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단 때문에 모여한 일이 아닌가? 그 뒤에도 이 교리 저 교리가 나타나게된 역사의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 교리가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특별히 인식에 감명되도록 조목으로 선포되는 이유는 그것에 반대되는 교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박윤선著 교리사)

4. 사도신경을 진리의 문서로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고 여러 성도가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신경을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박 윤선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오늘까지 바로 안 것이 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확실히 선지와 사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책이라는 것이다. 교리문서는 성경에서 뽑은 거룩한 교훈이고 그것이 성경적 교훈만 포함하고 있는 한(사도신경처럼)하나님의 말씀의 고백문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리사 p 21)

또 현재 화란의 개혁파 교회의 조직신학자로서 칼빈주의를 강력히 파수하고 있는 벨카위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경의 저작자 문제는 과거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경이 사도의 신조라고 주장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사도적 전도내용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교리사 p 22).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경을 확신할 수가 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이 성경에 비추어 틀렸다고 의심하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이 신경을 파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순교까지 한 자도 적지 않았으니 우린 확신하고도 남는다.

5. 사도신경은 무슨 뜻인가?

(1) 사도가 무엇인가?

사도신경이라 했으니 먼저 사도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특별한 사명을 맡아 대표자로서 파견된 사절을 말한다. 그리고 음필한 의미의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택한 12제자와 바울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도적 인물 곧 바울을 도우는 사람 또는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적용이 된다. 가령 사도가 쓴 것만 성경이라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가복음 등은 어떻게 성경이라 하겠는가? 이들은 사도급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다. 행 14:14『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고, 고전 9:5에도『우리가 다른 사도들과…』란 말씀이 밝혀 준다.

(2) 사도들이 가진 특수자격에 대하여

1) 그들은 하나님에게 또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다. (막 3:13, 눅 6:13, 갈 1:1)

2) 그리스도의 생애와 특별히 그의 부활을 목격자였다. (행 1:21, 22, 고전 9:1)

3) 말로나 글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친히 받았음을 의식한 자들이었다. (행 15:28, 고전 2:13, 살전 4:8, 요일 5:9-12)

4) 이적을 행하는 능을 가진 자들이었다. (고후 12:12, 히 2:4)

5) 그들이 한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다. (고전 9:1, 2, 고후 3:2, 3 갈 2:8)

그러므로 사도직은 특수직인 것이다.

(3) 한 번 뿐인 사도직에 대하여

사도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수직이다. 따라서 보통 목사나 혹은 다른 사역자들 보다도 탁월한 성직이었다.

동시에 사도는 영원한 교회의 초석들로서 전무후무한 단 한 번 밖에 없는 성직이었다. 그러므로 계 21:14 에 사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12초석』이라고 이름하였다.

사도의 단회적 곧 한 번 밖에 없는 사도직에 대해선 바울의 증거를 보아 알 수 있다.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도직의 확실성을 열심히 변증했다. 만일 사도직이 보통 교직과 같은 종류라면 그렇게도 변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예수께서 마 18:18에서 말씀하시기를『…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라』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인가! 이런 권세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말 한 마디에 상대가 죽어 버리니 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냐. 그러므로 이 권세는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이적을 보아도 그들의 성직이 보통종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행한 이적은 후대의 특수설리보다 더욱 기이한 것임엔 틀림이 없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이나 죽은 자에게 그림자만 덮혀도 살아나는 것이라든지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리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에서 홀연히 아소도로 옮겨진 일이라든지 또는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이적 등을 볼때 이 특수한 사도직은 한 번 뿐이지 계속해서 이어 가는 직분은 아닌 것이다.

(다음호 계속)

바울의 교회 교육관

조 영 길
(목사 · 교육위원장 · 6교구담당)

성경적인 교육학 혹은 사도 바울의 교육적인 관심이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에 능한 자였다고 봅니다. 그는 유대종교적인 입장에서 모세 율법에 능한 자였고 당시 헬라 철학사상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읍니다. 그가 제2차 선교여행중에 헬라의 수도이며 헬라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에피큐러스 철학자들과 스토익 철학자들과 변론하여 수세에 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 Epicureanism = 향락주의 사상, Stoicism = 금욕주의 사상을 말함) 더욱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선교사로 소아시아 전역과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그는 이론가요, 여행가요, 학자요 또한 복음 전도자인 반면에 교육학자였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자주 교사(敎師)라고 하였읍니다 (딤후 1:11). 그는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을 뿐 아니라 친히 교육자로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와 디도를 잘 가르쳐 훌륭한 인물로 키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독교 교육학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교회교육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었읍니다. 그의 교회교육적인 관심사를 그의 전서신을 통하여 연구 분석하여 정리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는 못 하고 디모데후서 3장14-17절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합니다. 다소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교회교육의 원리를 충분히 제시하여 주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교회교육관은 일곱 가지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볼 수가 있읍니다.

1. 교회 교육의 필요성의 제시입니다

"너는 배우고"하였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배워야만 합니다. 배움으로 참된 사람이 되고 바른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에서부터 교육하신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더우기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야말로 교육적인 필요성은 더 한층 절실하여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교육이다! 인생은 배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읍니다.

"배우고" (14상) 와 "교육" (16하) 이란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Emathes) 는 물론 배우다 (to learn) 는 뜻도 있지만 가르침을 받다 (be taught) 확인하다 (to ascertain) 지식을 얻다 (be informed) 이해하다 (to understand) 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 (Paideian) 이란 뜻은 훈련하다 (training up) 양육하다 (nurture) 훈육하다 (instruction) 훈계하다 (chastisement) 는 뜻입니다. 이상과 같은 뜻에서 우리는 배움과 교육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나 부지의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른 교육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어떠한 사물과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여 확인하고 그 지식을 내것으로 삼고 나아가서 훈련과 훈육과 교정을 통하여 결국 참 인격자로 양육을 받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같은 배움과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같은 교육이 없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교회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인류역사는 바로 인간 교육의 역사입니다. 교육을 바로 하고 힘쓴 민족과 국가는 오늘에 와서 다 선진국이 되었지만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절대성을 잘 깨닫지 못한 민족과 국가는 후진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성하고 거짓이 팽배한 말세일수록 더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때 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하고 있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라고 하였읍니다. 바른 교육은 세상을 정화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읍니다. 오늘 대다수의 믿는 가정의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열심이 있지만 교회 교육에는 그 같은 열심과 관심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학교 교육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육에 속한 사람 (The Natural Man)

의 교육이지만 교회 교육은 신성한 사람(The Spiritual Man)의 교육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참된 인격의 교육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교육은 바로 이같은 교육입니다.

2. 교육자 곧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의 전제는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스승)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늬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였읍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교사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교육의 삼대요소는 교사(敎師)와 학생(學生)과 학교(學校)를 말합니다. 교사(敎師)가 없이는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스승, 잘 가르치는 선생, 존경받는 교사야말로 보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대로 되는 것입니다. 배운대로 말하고 배운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영향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군 디모데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과 인격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거기에다 대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꼭 훌륭한 스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훌륭한 교사였다고 봅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경건하였읍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스승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읍니다(딤후 1:5). 오늘을 보십시오! 겉 다르고 속 다른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치 못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비인격적인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읍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 지상교회내에 거짓된 교사들의 출현인 것입니다. 하여간 바울 같은 훌륭한 교사 밑에서 훌륭한 일군 디모데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진실되고 경건한,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서도 참된 인격자, 훌륭한 교사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현교회 16부 주일학교에는 650여 명의 많은 교사들이 있읍니다. 유니게와 바울같은 훌륭한 교사들이 되도록 교회가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도 보다더 고등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겠읍니다.

3. 교육의 시기의 중요성 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의 시기입니다. 교육의 시기는 너무 이른 것도 없지만 또한 늦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하고 하였읍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려서 부터"(apo brepous)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디모데가 태교(胎教)를 받은 것을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서"(Brepous)란 말씀의 본래적인 뜻은 '싹'이란 뜻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씨눈이 발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싹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사용할 때는 임신 3개월 정도의 태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경우는 분명히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태중에서 그것도 임신 3개월 때부터 성경을 배웠던 것이었읍니다. 아마도 경건한 여성이었던 유니게는 임신 3개월부터 태아를 가진 것을 깨닫고 그 태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이요, 모세 율법을 중심한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매사에 조심하였을 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태교의 중요성과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반대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터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특별히 소련같은 나라에서는 수영선수를 길러 내는 데도 특별히 수중출산에서부터 시작하고 출생하자 마자 물속에 넣어서 수영하도록 교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읍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 못지 않게 내 아들만은 훌륭하게 잘 키워야지! 하고 단단히 결심하고서 나이 열곱 살이 되도록 키웠읍니다. 그러한 후에 아들의 손을 붙잡고 훌륭한 당대의 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키우는 일에 좋은 말씀을 좀 하여 주십시요!"라고 하였읍니다 그때에 고명한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신 채 "이 아이의 나이가 얼마 입니까?"라고 물었읍니다. 어머니가 "일곱 살이 되었읍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때에 그 선생님은 "아 벌써 7년이 늦었읍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고 그것도 태교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교육의 관심은 바로 조기교육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지도를 하는 새가정부에서부터 영아부 교육으로 그 다음에 유치부로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교육하는 우리교회 교육의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뭏든 조기교육과 먼저교육과 시작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이 방면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소에게서 배운다

김 원 남
(목사 · 구역권찰회장)

새 성전에 이사온지도 벌써 2 년이 되었다. 이제 새 성전 건축의 완공을 눈 앞에 둔 지금 교회의 부흥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되었다.

교회부흥은 천국일군된 우리들이 주인되신 하나님께 그 얼마나 충성되이 일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안다.

충성된 일군하면 내게 가끔 연상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 라고 하는 동물이다. 나는 어렸을 때 한8 년을 농촌에서 지냈는데 지금은 농사 짓는 법이 매우 기계화 되어서 소를 이용하여 농사 짓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소에 의존해야 했었다.

나의 부친은 남만주 이석재에서 큰 농장을 개척하여 농장장 일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눈을 가린채 쌀 찧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소가 눈에 선하게 기억된다. 눈을 가린 것은 소가 어지럽지 않기 위해서이다. 눈을 가린 소가 주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보일리가 없다. 그렇지만 소는 눈을 가리운채 연자맷돌 주위를 쉬지 않고 빙빙 돌아간다. 돌아가면 갈수록 누런 벼가 하얗게 찧어져 갔다. 아마 이 소처럼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누가 보아주든 아니 보아주든 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 동물도 드물것이다. 주인이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순종할 뿐 거역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많이 짊어지고 있다. 이런 자로서 주인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이용해서 불순종하는데 꾀를 부리는 경우가 있지 아니한가!

또 나는 자라나면서 해마다 봄철이 되면 밭을 가는 소들을 보았다. 사람이 삽으로 일일히 밭을 뒤엎는다면 몇 일이 걸려도 못다하는 일을 불과 두서너 시간이면 다해 치워 버린다. 소의 힘이란 실히 놀랄만하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씩 입김을 내뿜으며 온 힘을 다해 밭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을까? 50% 아니면 70%일까? 저마다 전심전력하여 일한다면 충현교회가 몰라보게 부흥하리라 생각한다.

여러해 전에 백령도에서 교회목회를 한 적이 있다. 그곳은 섬이라서 밭에 돌들이 많다. 육지처럼 소 한 마리가 적은 쟁기를 끌어 밭을 가는 것이 아니다. 육중한 쟁기를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에 메고 밭을 간다. 두 마리의 소가 같은 집에서 사육된 것이 아닌데도 서로 만나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밭을 가는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밭을 간다. 한 마리라도 꾀를부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려한다면 그 돌들이 많은 밭을 제대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서로 방해가 되어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다.

교회마다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 더욱 서로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멍에를 메고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역자간에, 장로들간에, 권사들간에, 성도들간에, 각부서간에 서로 서로의 협력을 잘 하여야 일의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의 현 실정으로 보아 보다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 주인에게 충성하는 소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소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다가 죽어서도 자기 몸 전부를 주인에게 바치게 된다. 소의 몸 전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가죽은 가방이나 구두나 트렁크나 혁대나 장갑으로, 살은 고기국이나 불고기감으로, 젖은 우유나 치즈, 분유로, 지방은 요리용이나 비누원료로, 꼬리나 발은 꼬리탕이나 족탕으로 긴요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소는 숨쉬고 있을 때 주인을 위해서 살고 숨이 끊어졌을 때도 주인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님께서 가끔 '사람이 태어나서 밥 값도 못하면 그게 무슨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셨다. 살아서 밥값도 못한다면 죽어서도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니 필경 소만도 못한 인생이리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여, 모든 일군들이여, 소에게서 배웁시다. 그리하여 교회부흥을 기필코 가져와 우리 교회의 5 대목표를 속한 시일내 달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순교자 조용학 영수

◇ 고 조용학 영수

조 인 제
(장로 · 제 1 찬양대장)

월간충현으로부터 선친되시는 조용학 영수님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청을 받고 참으로 감개무량하였읍니다.

조용학 영수님은 일제가 노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한 1904년 7월 13일 경남 양산에서 조영국, 곽주정 두분의 삼남매중 차남으로 출생하였읍니다. 조영수님은 양산읍교회에서 입신했으며 함열 목사와 주기철 전도사 등의 지도를 받았읍니다. 1923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았으며 1927년 12월 3일에 부산초량 교회의 설립자 신상익 장로(마산문창교회에서 장립)의 차녀 신차영과 초량교회에서 주기철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였고 1928년 3월 7일 경남성경학교를 졸업하였읍니다. 그리고 1928년 5월 14, 호주선교부의 부산지방시찰회에서 주선한 울산 언양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였읍니다.

경남 김해군 진영읍으로 이주한 후 조달공장과 염색공장을 경영하면서 조만식 선생의 농촌운동의 뜻에 적극 호응하는 동시에 장인되시는 신상익 장로와 진영읍교회를 설립했으며 영수로 시무하던 중 일제의 한국교회 말살정책과 신사참배강요에 맞서 신앙절개를 고수하시고 진영읍교회를 사수하시다가 극악무도한 일본 경찰의 취조와 고문으로 두부손상을 입고 가족들에게 인도되었으나 혼수상태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하시고 부산철도병원에서 해방을 5년 앞둔 1940년 8월 14일 새벽, 4남 을제가 태어난 그날 정오에 영수님은 하늘나라로 불려 가셨읍니다.

내가 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나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 살 맘 많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도다

영수님의 평소 즐겨 부르시던 이 찬송이 영수님의 육성으로 유성기 양판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이를 보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1977년 9월 30일 영수님의 친구 이일우장로님이 필자에게 보내주신 추억문에는 "유고집을 출판한다니 참으로 기특하며 매우 반갑습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

〈 **앞줄** 가운데 주기철 전도사,
가운데줄 왼쪽부터 이일우 장로,
금일평 집사, 조용학 영수〉

며 선친 어른이 생존해 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 것입니까? 선친의 죽음에 대하여 일언을 하고져 함은 제 2 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관헌의 신사참배 강요에 죽음의 항의로 당시 진영경찰의 매주 호출과 협박에 피로 하게 되었고, 특히 진영교회 매주일 설교를 담당함에 매월요일에는 필히 경찰서에 연행되어 협박을 당하고 나오곤 했읍니다. 육체의 고문도 고문이지만 정신적으로 못살게 했읍니다. 갖은 고문으로 혼수상태를 계속하면서 부산철도병원에 한주일 입원중 부름받고 병원에 달려가니 입관되어 무언의 상면후 조 영수의 장모 말씀에 '격검도(擊劍刀)亂立시킨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았다 합니다' 하시면서 낙루落屨)를 합니다. 신사참배거부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숭고한 죽음이었읍니다. 익일에 대신정화장장(大新町火葬場)에서 고별사를 본인이 낭독함에 유족석에서 방성통곡이 일어남이 지금도 눈앞에 방불하여 집니다"라고 쓰여져 있읍니다.

또 장녀되시는 조예제 집사는 13세의 소녀시절에 영수님이 박해받으시던 때를 회상하여 말하기를 "일본인 유지들과 순사들이 꼬투리를 잡으려 기세당당히 구둣발로 교회당 마루를 짓밟고 담뱃불 꼬나물고 회당 뒷벽에 나열하자, "여러분들이 사람의 집에 들어올 때에도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 여기는 신성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벗으라! 담뱃불을 끄라! 고 준엄하게 호통을 치자 안하무인격의 왜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던 영수님을 끌어내려 매질과 욕설로 연행하게 되고, 가족들과 교인들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따름이었다"라고 했읍니다.

1939년 여름에, 조 영수님이 제 3차 예비검속시의 취조와 고문을 통하여 쇠약해진 몸을 해운대에서 정양하였읍니다. 여기에서 정양중 평소 존경하시던 모 선생님과 문통을 하였는데 "죽도록 충성하자,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시록 2:10)의 성경 말씀을 붓글씨로 엽서에 써서 신앙싸움의 격려문으로 보낸 것이 보관되고 있읍니다.

신사참배를 인하여 수차 검속되고 취조와 고문을 신앙으로 극복한 것은 특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35)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4:7)의 두곳의 성경말씀으로 위로받고 노모님과, 처와 어린 자식들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셨던 것입니다. 상기 두곳의 성경말씀도 모선생님이 1940년 7월 11일자로 보내주신 것이 지금까지 필자가 보관하고 있읍니다.

1940년 9월 그 선생님의 「해운대에서」라는 글에 "8월초 조용학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만 일 선생님을 만난다면 울부짖으며 얘기하고 싶다' 라고 적혀있다. 나는 8월 24일 부산에서 강연하고 해운대에서 숙박하게 되었고 그때에 나는 저의 울부짖으며 호소하고자 하던 바를 들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는 나의 해운대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니 내가 해운대에 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저는 천국으로 불려 갔다. 8월 14일에 조용학 하늘로 불려감 이라는 전보가 왔다. 나는 아멘하였다. 동시

주기철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조만식 선생님의 농촌계몽운동에 적극 호응했으며 신사참배 강요하는 일제에 항거하다가 마침내는……

에 나의 마음에 투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들으시고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곁에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의 눈의 눈물을 전부 씻어 주셨다. 땅위에서 불행하였던 조용학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행복할 것임이 틀림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중에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불려가셨다. …나는 땅위에 있던 조용학님과 하늘에 불리어 가신 그를 생각해 본다.…조용학은 한사람만이 아니다.…그에 대한 나의 사랑과 동정은 복음전도의 열심으로 나의 가슴에 불타오른다"라는 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조용학 영수님의 울산 언양교회 전도사 시절과 양산읍교회 집사 시절의 일기장 두권과 양산교회 옛교인 우집사 김해 대지교회 구남이 전도사 등이 저를 붙들고 울면서 순교자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들려준 내용이 녹음으로 보관중이며, 경남성경학교 1928년 졸업사진을 비롯하여 주기철 전도사의 양산교회시절 사진들, 일제시대 마산 창원지역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조경우 목사님을 모신 수차례의 추모예배 설교말씀 테이프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 자녀들을 십년만 키워 두고 남편 뒤를 따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신차영 집사님의 신앙잡기「心琴」일곱권 및 일기장 등으로 유고집 및 추억문집을 속히출판하고저 이젠 미진하나마 필자의 자료수집을 일단 마감코자 합니다.

그러나 1937년 7월 7일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본토를 차지하고 조선을 대륙 침략에 투입코자 강압정책을 펴나갔고, 1937년에는 황민서사(皇民誓詞)란것을 조작하여 국민학교 1년생이었던 필자와 당시 코흘리개들까지 이를 외우게 하였고, 1938년에는 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어교육을 폐지시켜 집과 동네에서 일본어를 쓰지 않는 학생은 서로 고발하도록 만들었고, 1940年에는 창씨개명과 강제징용을 강요하면서 조선인 지식층과 친일파 목사들을 앞세워 소위 내선일체, 지원병 권장연설을 하는 한편, 언론통제를 강화하여 1940년 8월 10일자로 동아일보마저 강제폐간한 이외에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도들에 대한 초강경탄압책으로 그들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책에 항복하지 않는 소위 특교범들(특별고등사범을 다루는 특고계가 신설 되었다고 하였음)은 고문중 사망하더라도 당국으로서는 책임을 추궁치 않겠다는 총독부의 비밀문서를 전국경찰서에 보냈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자료를 아직 찾지 못하였고 조영수님의 수차에 걸친 예비검속시의 조서들과 손수레 하나 가득한 서적, 일기 등의 압수되었다는 자료들을 찾고자 원하는 필자의 열망을 아직 반도 달성치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영진 전도사님이 옥중성도로 해방후 출옥되자, 진영에 오셔서 할머니 곽수정 권사님께 양산교회 시절 부터 잘 아시는 조용학 영수님이 1940년 8월 순교하신 얘기를 자세히 들으시고 "이 역사는 내가 기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였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 한분이 할아버지의 젊은시절 자료를 찾던 중 필자에게로 찾아왔으므로 주영해 장로와 필자와의 대화가 열려 피난길에 주기철 목사님의 자료상자를 동생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장남인 주 전도사님이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합니다.

조용학 영수님의 남아 있는 일기장에 발신인, 수신인 명단에 주기철 목사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또 주영진 전도사님이 역사를 쓰신다고 하신 얘기를 필자로서는 무관심하게 도저히 잊어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수난사 자료수집으로 수난사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친 되시는 조용학영수님의 신앙유산이 후손들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신앙이 대대로 면면히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과 삶

김 연 이
(전도사 · 유년부 지도)

싱싱한 초록을 뚫고
노오란 꽃봉오리
팽팽한 기대로 피었다가
찬란했던 시절은 지나가
꽃잎은 떨어지고
깃털도 흰빛을 발하며 떠나가고
꽃자루만 남지만 이것도 색을겟
그러나 민들레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떠나간 씨방들이 새생명 잉태하여
흙에 묻혀 썩어진 씨앗이 다시 싹트면
그는 역시 민들레 일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땅에 묻혀
죽음으로 해체되나
부활로 변화되어
또한 전혀 다른 형체로 피어날 것이니
존재하는 것은 역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기
삶의 의지를 세계 봅니다
민들레처럼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것은
흙에 속한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자의 형상을 입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추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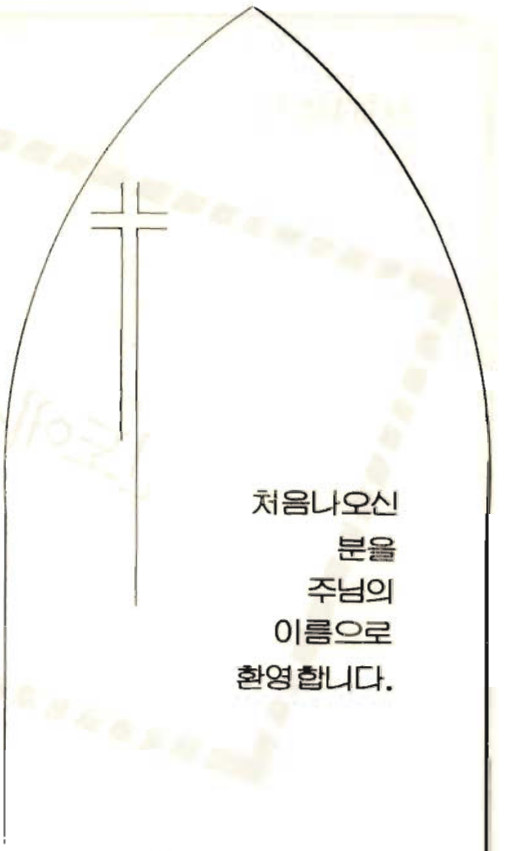
안 유 향
(권사 · 새신자부 교사)

요즘 부쩍 내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40여 년 전 학생시절에 선생님과 상급생을 따라 사적 탐방을 갔었던 일이다. 토요일이면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배낭을 메고 오오사카(大阪) 나라(奈良) 쿄오토(京都) 시가(滋賀)지방을 차례차례로 사적을 찾아 탐방을 다녔다. (필자는 그 당시 일본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 때 시골길을 걸어 가면 길가에 돌부처가 눈에 띄었다. 원숭이 세 마리였다. 한 마리는 입을 막고, 한 마리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또 한 마리는 귀를 가리고 있었다. 그것도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보잘것 없는 돌부처였다. 그 당시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뿌연 먼지에 파묻혀 형상조차 잘 가려낼 수 없었던 그 초라한 돌부처가 그 후 20년, 30년, 40년이 지나 60세를 훨씬 넘은 나의 마음을 이다지도 두들겨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지…

그것은 일본어로 「見ざる」「聞かざる」「言れざる」라는 세 마리의 원숭이다. 보지말 것, 듣지말 것, 말하지 말 것 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한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보아서는 아니될 것, 들어서는 아니될 것, 말해서도 아니될 수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많은 것들을 절제해 나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길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

주여! 십자가의 도를 항상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게 하옵소서.



처음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신자부는

- 처음 믿으시는 분(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부득이한 시간 사정으로 새신자부에 참석치 못하는 분은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읍니다.
- 교육시간은 매주일 3부 (10시 30분) 예배 후(12시)에 본당 103호실에서 6개월간 공부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읍니다.
그럼 주일에 새 신자부에서 만나 뵙게 될 것을 바랍니다.

충현교회 새신자부

인도에서 온 편지

엘리야 겔간

● 여름철의 수루게곡에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는 유목민인 구자르 부족과 바케발스 부족들이 그들의 양과 염소들과 함께 흩어져 지냅니다. 그들의 주식은 우유와 고기와 옥수수 혹은 밀가루 빵으로 그들은 인도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중 필수부분들 없이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들의 일부가 성냥개비와 소금 및 의약품을 사거나 양모등을 팔려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제가 카길에서 랑돔으로 내려가는 길에 만원버스의 엔진덮개 위에 앉아서 갔을 때 이 불편한 자리, 흔들거리는 버스에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을 잊게 하려는 듯 산들과 계곡의 물들과 녹아 흐르는 빙하의 모습은 멋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듯이 보였읍니다. 그들의 대화가 잡담은 오직 그들의 「마알」(=소유물) 즉 양과 염소들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읍니다. "자네, 아브라함이 지난 금요일 양 네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아는가?"하고 묻기도 하고 "여보게, 야쿱의 떼는 빙하를 건너서 지금은 아마 사파트계곡을 향해 가고 있을 거야!"라는 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은 양에 대한 이야기에 지치지도 않나"하고 들릴 정도로 중얼거렸읍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즉시 대답하기를 "선생님, 그들의 생활은 양을 위한 생활입니다"라고 했읍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읍니다. 얼마나 자주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양문제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로 인해 권태를 느끼곤 했었나? 때때로 나는 적어도 내 생각속에서라도 삯꾼 목자가 되었었다. 나는 목자나 전도자가 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사람들을 나의 「마알」,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가!

마음이 혼란스러운 여행이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 부족사람들이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렸읍니다. 주여, 아직 당신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읍니다. 제가 그들을 기쁨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들도 한 목자에게 한 무리가 되도록 하겠읍니다.

● 다른 영혼을 위해 짐을 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이겠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위

하여 사람 안에서 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아마도 싱가폴 태버나클(법궤)교회의 데이빗 세아 목사께서 그의 회중들과 선교의 비젼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설명한다 하겠읍니다.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가 직접 함께 간호원 안젤라 후웨 쿤늑양과 플로렌스 콰이 하르 유에양을 스리나가르까지 데리고 오고 파르카칙과 카길의 다른 지역을 위해 6개월 동안 동역하도록 해주었읍니다.

싱가폴의 국제적인 문화풍토의 덕으로 너무나 쉽게 현지의 모든 어려운 풍토에 적응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정말 싱가폴 사람인가?"하고 놀랐고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라다크 사람이라고 생각했읍니다.

비자갱신이 지연되어 장스카르계곡 지역엔 못갔고 10월 25일 싱가폴로 되돌아갔읍니다.

영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역을 계기로 눈으로 보듯이 알게 되었읍니다.

● 파르카칙 지역 사회개발에 있어서 비록 늦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목축외에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실험 채소농장의 채소가 분실되는 것을 보고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계속 채소를(합법적으로!) 재배하여 먹도록 격려하고 요리법도 가르치고 환자들에게 약과 함께 주고 있읍니다.

● 실을 뽑고 엮어서 짜는 두 소녀 훈련생들이 '아마사키나' 양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훈련생 몇이 수직기를 살 특별 보조금을 탈것 같습니다.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데다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겠기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서관과 문예사업은 문맹률이 높아 호응도가 낮습니다.

어른들의 문명퇴치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실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읍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제임스 나아벤씨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8월에 라다크 모라비안 교회가 카길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레(Leh)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읍니다. "카길회복"팀(계간선교사 소속단체이름)소속 멤버 전부가 함께 동참했었읍니다.

● 신약성경의 티벳의 퓨리그 방언으로의 번역사업에도 약간의 진전이 있으나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미국인 칼라 래드롭양 등 번역 사업에 관계하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를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 1985년 3월에 군에서 전부 재정비하여 불하된 짚차를 샀고 9월엔 오토바이를 구입했읍니다. 오토바이는 파르카칙 사업에 전용하고 짚차는 진료사업과 선교활동에 쓰고 있읍니다. 카길에서 소매상을 하는 하산카이란 좋은 정비사를 만나 "여호아 이레"를 감사드립니다.

● 1985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수루계곡과는 달리 불교도와 시아 회교도가 섞여 사는 물벡 지역에서 금년부터 인도 월드비젼(선명회)에서 사업 인가를 받아 선교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담당할 헌신적이고 잘 훈련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읍니다. 안드레아스 스카브단은 1월 19일에 세 살이 되었고 르우벤 키메드는 지금 한 살 하고 석달이 되었읍니다. 두 어린애들로 메에나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상상이 가실겁니다. 지난 두 주 전부터 르우벤은 두 발로 서서 걸었읍니다. 앤디의 생일 선물로는 놀랄만한 사건이죠.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친애하는 동역자 친구 여러분, 편지를 마쳐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1리터의 기름으로 70킬로미터를 운전해 갔던 일 등과 같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기적들과 섭리의 역사 같은 이야기와 우리가 일하면서 겪은 가슴 아픈 일들이나 또는 결코 떠나지 않는 기쁨 등을 쓰고 싶어도 여백이 없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기를! 아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실려 보내며…

여러분의 엘리야 · 메에나 · 앤디와 르우벤겔간 가족 일동.

신앙상담

십일조 생활에 관하여

김 창 근
(목사 · 성가위원장, 9 교구)

문 : 십일조는 반드시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십일조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십일조란 우리의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그 중에서 1/10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최저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 헌금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왜냐하면 십일조 헌금은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에서 말한 십일조는 자기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일조 헌금의 원칙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이므로 오늘날도 마땅히 준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 십일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이유

(1) 창 14:20 『…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 창 28:22 『…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3) 레 27:30-32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소나 양의 십분 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4) 말 3:10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5) 마 23:23 『…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6) 민 18:21-32, 신 12:5-18, 신 14:22-29 등 많은 성경구절이 십일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왜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레 27:30) 모든 것 (의식주와 보호, 평안, 축복) 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창 14:20).

2. 십일조를 드리는 자세 (방법)

(1) 청지기 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대상 29:14)

(2)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 7:4).

(3) 풍성히 드려야 합니다 (대하 31:5).

(4) 성심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대하 31:12).

(5)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말 3:10).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인이 된다고 말 3:8-9에 4회나 강조하고 있읍니다.

3.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복

(1)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신 14:29, 말 3:10).

(2) 재난을 면하고 풍년을 맞습니다 (말 3:11).

(3) 복된 나라가 되고 열방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말 3:12).

(4) 교회역사에서 십일조 생활한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는 복을 누렸읍니다.

4. 맺는말

십일조 헌금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드렸고 (창 14:20) 야곱은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여 큰 축복을 받았고 (창 28:22) 예수님께서도 친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마 23:23).

그러므로 십일조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저」의 의무이고 나머지 9/10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요구하셔도 합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의할 것은 어떤 사람은 십일조 중에서 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등 여러 헌금을 자기 임의로 나누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십일조는 온전히 드리고 그외의 것은 남은 것 중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온전한 십일조를 정성껏 드리므로 약속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말라기 3:8-12을 찾으셔서 큰 소리로 읽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

추천도서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김 익 경(목사 · 고등부지도)

본서의 저자인 존 스타트 목사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경강해자요, 런던 All Souls Church의 성공적인 목회자이며 지금은 런던의 현대기독교연구소 소장으로 현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활약하시는 복음전도자이다. 그는 보수적인 신학 노선을 굳게 세우면서도 예리하고 통찰력있는 명강의와 많은 저술활동을 통하여 현대 지성인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다.

본서는 그의 최근의 저서로서 복잡한 현대 세계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저자는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자유주의의 공격과 사회복음에 대항하여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방어하는데 주력함으로 교회가 자칫 개인구원과 개교회 위주의 움츠려드는 성향과 함께 현대 사회문제에 소극적이 되기 쉬웠던 약점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뿐 아니라 복잡다원하면서도 세속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조망과 대안을 가짐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을 갈파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 사회의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제기하고 어떤 문제에도 성경이 답변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내 용

제1부 비기독교적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제1장 사회 참여 제2장 복잡성 제3장 다원론 제4장 소외

제2부 세속적 문제

제5장 핵무기의 위협 제6장 인간의 환경 제7장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 제8장 인권

제3부 사회문제

제9장 노동과 실업 제10장 노사관계 제11장 다민족사회의 꿈 제12장 빈곤, 부 그리고 소박성

제4부 성적문제

제13장 여자, 남자, 그리고 하나님 제14장 결혼과 이혼 제15장 낙태 딜렘머 제16장 동성애적 교제

결 론

제17장 그리스도인 리더쉽의 요청

저자 : 존 스타트 역자 : 박 영 호 발행 : 1985. 11. 기독교 문서 선교회 정가 : 5,000원

김창인목사 설교집 제2집

칭찬듣는 교회

큰국판/420면/양장/값 5,000원

김창인 목사의 두번째 설교집이다. 1976년 첫번째 설교집 이후 설교한 내용중 30여편을 엄선하여 실었다. 김목사님의 설교는 듣는 설교라고 알고 있지만 책으로 된 설교집에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목사님의 설교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아래 머리를 숙이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 왔다. 박윤선 목사는 추천문에서 "그의 설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의 원리와 창작적인 생명력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소식

■ 부흥 사경회

본교회에서는 성전건축 3차공사 시작과 함께 4월 28일 부터 5월 2일까지 성전건축을 위한 부흥사경회를 가진다. 따라서 이번 부흥사경회중에는 건축헌금을 작정할 예정이다. 강사는 이상근 목사(대구제일교회시무)로서 모든 교우의 기도와 참여가 요청된다.

■ 당회장 김창인목사 '86아시아경기 시민 봉사자대회에서 설교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지난 2월 22일(토)에 염보현 서울특별시장을 비롯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86아시아경기 시민봉사자 대회에서 봉사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

■ 장로반 성경공부 시작

장로 성경공부가 지난 3월 16일(주) 선교관 302호실에서 오후 5시에 윤영탁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시작됐고 지난 4월 6일(주)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 모범가정 초청좌담회

새가정부에서는 지난 4월 6일 12시에 새가정부실에서 모범가정 초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종성장로님 가정, 김형선안수집사 가정, 이종국안수집사 가정이 모범가정으로 초청되어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제 3 차 공사 착공예배

할렐루야! 그동안 온 교우들이 고대하던 3차공사가 흥화공업주식회사(사장 최명환집사)와 계약체결되어 지난 4월 8일(화) 오후 3시 본당(2층)에서 많은 교우들과 흥화공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격적인 착공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사회로 건축위원장 임광식장로의 기도, 건축부위원장 최석주장로의 건축준비 경과보고,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 흥화공업사장 최명환집사의 인사말, 당회서기 이응선장로의 광고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교우들의 감격의 눈물을 볼 수가 있었다.

■ 3.1절 구국성회

사단법인 북한선교원(이사장 김창인목사)이 주최한 3.1절 구국성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본교회당에서 연인원 15,5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집회를 가졌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 7:3)라는 주제로 당회장 김창인 목사, 김홍도목사, 이천석목사, 이호문목사, 조준상목사가 강사로 수고했다.

■ 회계감사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 23일 주일에 교육관 110호에서 각지회의 회계, 주일학교 각부 회계, 각찬양대 회계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 저녁예배 시간 변경

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저녁예배 시간을 오후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했다.

■ 부활절 축하음악예배

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부활절을 맞아 저녁예배를 축하음악예배로 드렸다.

이날 예배는 성가위원장 김창근목사의 사회로 박용삼장로의 기도, 신성종목사의 「부활의 확실성」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연합찬양대의 부활절 축하음악 순서가 있었다.

■ 제 1 차 구역일군 교육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 1 차 구역일군 교육이 교구일군 79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효과적인 구역예배 (김원남목사), 효과적인 구역심방(이두란전도사), 효과적인 구역전도 (이양우목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 86년도 제 2 차 성례식

1986년도 제 2 차 성례식(학습·세례·유세·입교·개종) 문답이 지난

3월 20일(목), 21일(금)양일간 있었다.

세례식은 21일(금)오후 2시 유아세례식과 오후 7시 장년세례식 2차례가 있었고 성례식 문답 통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성별	남	여	계
학 습	43	64	107
세 례	21	36	57
유아세례	14	11	25
입 교	10	16	26
개 종	·	3	3
합 계	88	130	218

한편 성찬식은 3월 23일(주) 5부에 걸쳐 거행됐는데 수찬자 수는 총 5,162명이었다.

■ 전구역일군 축호 및 노방전도

총동원 전도로 전구역일군이 4월 11일에는 강남구 일대, 4월 18일에는 강동구 일대에서 축호 및 노방전도를 가졌다.

■ 신애복음 선교회 재단 기증예배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 30분 충현교회 본당에서 신애복음 선교회(이사장 현신애 권사)로 부터 사단법인 북한선교원으로 전재산을 헌납하는 기증예배가 있었다. 이날 신애복음선교회 이사회 증여결의서를 북한 선교원 이사장 김창인 목사에게 전달한 현신애 권사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 지난 36년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은 여종으로 현재 북한 선교원 이사로도 수고하고 있다.

이번 헌납을 계기로 북한 선교원에서는 앞으로 현신애 권사의 일생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족복음화와 북한선교에 더욱 앞장 서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에 헌납하게 된 재산 현황은 서울과 대전, 전주의 제단으로 총 대지 3,632평, 건물 2,301평으로 약 30억원 규모이다.

■ 군입대자 파송예배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차 군입대자 파송예배가 지난 2월 5일 (수) 밤예배시에 드려졌다.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교회와 계속 연관을 가지며 월간충현과 신앙책자들을 보내 주게 된다.

기념품으로는 성경·찬송(해설판) 합부를 증정하고 있다.

입대 대상자 : 이덕 (1교구) 차문수 (2교구) 임광묵 (6교구) 안세현 (10교구) 장호근 (9교구)

■ 상설노방전도인 간담회

전도위원회가 주관한 상설 노방전도인 위로 및 간담회가 지난 2월 24일 (월) 오후 6~9시까지 선교관 304호에서 있었다.

대상은 청년부의 명동, 서울역, 중부경찰서 유치장 전도팀과 대학부의 N.M.C 병원전도팀이었다.

■ 제7기 70인 전도요원 훈련

제7기 70인 전도요원 훈련이 지난 3월 13일 (목)에 시작되었으며 이 훈련은 앞으로 5월 1일 (목)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된다.

■ 상담요원 및 전도대원 훈련

전도위원회에서는 4월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아 상담요원 및 전도대원 훈련을 가졌다.

지난 3월 27일 (목)에 70인 전도요원 수료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관 314호실에서 가졌다.

한편 4월 4일 (금)에 구역권찰회 전 구역일군 (지역장·부지역장·구역장·권찰전원)과 16부 주교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본당101호에서 가졌다.

■ 충현유치원 졸업 및 입학예배

유치원에서는 지난 2월 21일 (금) 오후 2시에 유치원 1기생 졸업예배를 드렸다.

1부는 우기전원장의 사회로 조영길목사의 기도,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고 2부는 졸업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정자원감의 학사보고, 졸업장 및 상장수여 등의 순서가 있었다.

한편 3월 7일 오후 2시에는 입학예배가 있었는데 사회에는 우기전원장, 기도에는 이동란전도사, 설교에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였다.

■ 전국 영아부 지도자 및 교사 수련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영아부 지도자 및 교사수련회가 지난 3월 3-4일 양일간 영아부실에서 '심은대로 거두는 영아부 교육'이란 주제로 당회장 김창인목사, 정소영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연인원 5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 겨울 계절학교

교육위원회 산하 8개부서 (영아·유치·유년·초등·소년·대학·청년·직전부)의 겨울 성경학교 및 수양회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있었다.

각 부서별 주제 및 강사, 장소, 참가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부별	주 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강 사	실시기간	실시장소	참가인원		
							교사	학생	계
영아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전 13:6	사랑은 사랑은	김창인 정소영	86 2. 11—12	선 102 선 103	34	(317) 368	402
유치부	선한 목자 예수님	요 10 : 1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김오용 정연희 이경애	2. 24—26	교 107, 205 301 호	77	(105) 298	375
유년부	다시오실 예수님	계 22 : 20	161 장	김연이	2. 24—26	교 212 호 교 307 호	59	304	363
초등부	예수님을 아는 어린이	요 17 : 3	94 장	남창우	2. 24—26	교 314 호 교 414 호	51	313	364
소년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시 119:97	235 장	김성윤	2. 24—26	교 507 호 교 514 호	61	314	379
대학부	주여!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소서	시 126 : 3	519 장	윤용규	2. 10—12	충현기도원	9	91	100
청년부	말씀으로 뜨거워지자	눅 24 : 32	209 장	이성근	2. 20—22	교 414 호	5	93	98
직전부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 : 1	102 장	김오용 장해순	3. 1— 2	교 414 호	28	132	160

■ 성경연구원 개강예배

충현 성경연구원의 86년도 제 1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3월 1일(토) 오후 5시 교육관 301호실에서 윤태곤 목사의 사회, 최성현장로의 기도, 조영길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다.

■ 고등·장년2·새가정부 특강

지난 2월 16일(주)에 고등부에서는 「진화냐 창조냐」를 주제로 김종배 박사의 특강이 있었고 장년2부에서는 「유대인의 자녀교육」이란 주제로 김경성전도사의 특강이 있었다. 또한 새가정부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란 주제로 고경자집사의 특강이 있었다.

교우동정

새교우

역삼구역 김은규	서초구역 황규상	서초구역 한남례	역삼구역 김종남	역삼구역 김미경
염곡구역 김옥자	대치구역 윤희자	개포구역 정미옥	대치구역 연예순	흑석구역 조은희
남현구역 이정홍	안양구역 이재무	노량진구역최미연	종로구역 오장운	고양구역 김순덕
미아구역 김병용	수유구역 황금연	신당구역 이원희	면목구역 이현경	하왕구역 김경옥
구의구역 배홍제	충무구역 김금애	극동구역 이순례	개포구역 이영구	숭인구역 최동식
북아현구역안한주	성수구역 정연택	대치구역 김광현	역삼구역 정영희	봉천구역 송표자
봉천구역 박종호	현대구역 전경이	과천구역 고근하	광명구역 김인권	화양구역 박남주
논현구역 최정옥	논현구역 박노현	방배구역 오종철	역삼구역 도덕순	역삼구역 정금례
개포구역 김연수	서초구역 박상금	무악구역 신서운	개포구역 이인석	신당구역 신명성
미아구역 아성표	성남구역 이화숙	영동구역 김문석	영동구역 심보형	영동구역 박성근
성남구역 김진선	내곡구역 황태희	역삼구역 조규화	역삼구역 성춘순	경복구역 안성남
한양구역 김미희	신림구역 황 자	방배구역 황현웅	신림본동 김성철	방배본동 김영춘
부천구역 김금자	인천구역 이정자	인천구역 박찬두	수색구역 이경자	무악구역 이정희
쌍문구역 고명환	보문구역 김지영	미아구역 김복순	도봉구역 오봉록	시영구역 전영희
잠실주공 박미혜	풍납구역 남궁경	성수구역 김동석	자양구역 최미숙	금호구역 최종석
역삼구역 김영환	염곡구역 황의평	대치구역 김명자	역삼구역 고영숙	역삼구역 강수원
역삼구역 조규순	논현구역 고미자	논현구역 박명희	반포삼호 신영기	신반포구역황낙효
봉천구역 김화옥	목동구역 최중환	부천구역 이동운	시흥구역 유홍열	독산구역 전재식
부천구역 홍순문	종로구역 김용식	관훈구역 강현미	월계구역 송경숙	회기구역 강홍석
암사구역 송인호	자양구역 양복자	자양구역 편선희	자양구역 윤수정	광희구역 엄성섭
쌍림구역 이광주	묵정구역 임윤자	마장구역 조인식	대치구역 박광조	염곡구역 김형택
역삼구역 백성진	도곡삼호 이정학	개포주공 오경찬	개포주공 김동섭	방배본동 성서택
봉천구역 이현규	신림구역 고두일	사당구역 김정수	신길구역 오귀례	당산구역 권종운
당산구역 김 남	신당구역 고찬석	신당구역 남승연	삼전구역 김인환	풍납구역 김계자
천호구역 이홍걸	광주구역 권호근	홍익구역 황성일	사근구역 김경원	금호구역 조준구
개나리구역이진강	성남구역 유동훈	역삼구역 강신순	논현구역 김귀중	심성구역 유동운
논현구역 김종옥	대치구역 김성은	방배구역 김하경	이태원구역유송자	과천구역 함선동
봉천구역 홍영월	창천구역 김종수	숭인구역 황보추자	신내구역 정정미	천호구역 손경애
자양구역 이진순	자양구역 안남수	중림구역 신혜원	성남구역 장태욱	청담구역 권홍민
사당구역 염광호	봉천구역 조숙자	봉천구역 김옥경	평동구역 김진학	신당구역 박미애
천호구역 고정순	행당구역 이성대	청파구역 김재덕	염곡구역 김신후	삼성구역 윤애영
신사구역 이창근	현대구역 성은창	삼성구역 윤병길	봉천구역 허 오	상도구역 김행자

불광구역 김연희 노고산구역이종규 성내구역 박경자 암사구역 민석순 주교구역 김인용
청담구역 김종산 양재구역 황광원 역삼구역 유영순 역삼구역 이순석 역삼구역 백봉학
반포구역 이병중 개포주공 정은주 구로구역 한공섭 신사구역 권무근 논현구역 박경순
김포구역 권경찬 봉천구역 김영숙 시흥구역 김산복 대림구역 윤 정 갈현구역 이재승
창천구역 최경식 상계구역 이정순 수유구역 김상기 상계구역 권구선 방이구역 홍탁선
홍익구역 김영숙 하왕구역 장성옥 역삼구역 송성식 역삼구역 최영선 역삼구역 이상훈
서초구역 김왕희 도곡구역 김정순 역삼구역 김양희 역삼구역 손미경 개포구역 강인정
신림구역 곽원중 홍제구역 김근배 대흥구역 박동준 신당구역 박갑정 남양주구역 김월년
풍납구역 학숙현 길동구역 김덕혜 잠실구역 조성재 마장구역 김광남 행당구역 김성자
자양구역 남은주 금호구역 박현순 자양구역 박찬인 도선구역 이혜경 신계구역 박형태
신계구역 박정옥 묵정구역 전옥실 오장구역 오연수 역삼구역 문정이 역삼구역 박정석
개나리구역김향자 개포구역 고순덕 논현구역 주정희 반포구역 최혜선 대방구역 박공희
경복구역 이상권 반포구역 유영호 신림구역 전영옥 봉천구역 전영옥 봉천구역 조찬락
인천구역 황은주 냉천구역 박두식 대흥구역 장경숙 창신구역 김경희 종암구역 정백란
공릉구역 김남일 남양주구역라중희 중화구역 김옥란 남양주구역이은주 잠실구역 조용수
천호구역 김태미 잠실구역 한성무 삼전구역 최현미 가락구역 김미애 송정구역 이강전
행당구역 윤옥희 광희구역 조진성 인현구역 한옥분 개나리구역김선희 서초삼호 이영순
역삼구역 박덕숙 역삼구역 손혜영 개포우성 김숙복 논현구역 권중현 파천주공 강창희
신림구역 전시조 봉천구역 강경의 봉천구역 박병금 창신구역 최희관 상계구역 백선흠
하계구역 조명자 구의구역 추원식 성수구역 김동일 수하구역 조태현 역삼구역 박승완
성남구역 홍상기 역삼구역 박동찬 역삼구역 문권주 잉재구역 김용숙 역삼구역 김선순
역삼구역 허은순 성남구역 김갑례 개포구역 김성한 신사구역 송주덕 은마구역 최규용
논현구역 김택선 반포구역 김은희 봉천구역 최연애 파천구역 이욱자 반포구역 강돈희
현저구역 유오영 명륜구역 이주연 도화구역 유신형 돈암구역 김복실 면목구역 유호순
장안구역 이숙인 답십리구역오현호 면목구역 윤정자 삼전구역 강은숙 성내구역 조순금
잠실본동 하명숙 자양구역 정명숙 하계구역 정희성 대치구역 윤보섭 녹번구역 박길우
삼성구역 조명심 역삼구역 김윤희 냉천구역 박삼례 봉천구역 백남산 행당구역 박정숙
개나리구역현진영 논현구역 이필림 불광구역 박영길 서초구역 윤상욱 서초삼호 정진석
논현구역 이남순 화곡구역 임낙준 휘경구역 권오순 하왕구역 이희재 행당구역 김정환
휘경구역 박진성 논현구역 강선규 논현구역 공병택 행당구역 황두성 인천구역 김재권
화곡구역 이돈인 논현구역 윤숙자 월계구역 박동현 대조구역 오지혜 동두천구역정운장
동두천구역김성국 대치은마 문영수 서초구역 신영희 역삼구역 차평현 역삼구역 이기철
역삼구역 김복득 역삼구역 정요숙 논현구역 채정희 개포구역 김휘자 신사구역 배봉석
신사구역 나정자 신대방구역 박동선 반포구역 김영옥 잠원구역 배미애 양평구역 정혜완
광명구역 최순희 창신구역 김완옥 면목구역 엄석용 면목구역 은양근 구리구역 박화순
용두구역 김말선 신당구역 최 관 행당구역 서신숙 행당구역 조명자

결 혼

▲ 이일회군과 홍순희양 (갈현구역 홍종대씨 이명옥권사 딸) 1월 25일 오후 3시.

▲ 한대송군 (조말례권사 아들) 과 홍주련양 1월 25일 오후 2시.

▲ 송기상군 (송명섭집사 아들 송기홍장로 동생) 과 이순애양 1월 28일 12시.

▲ 김익경군 (본교회 부목사) 와 천혜연양 (천성용집사 최금성권사 딸) 1월 28일 오후 2시.

▲ 김덕영군과 이은주양 (이춘만집사 김정순전도사 딸) 2월 14일 12시.

▲ 백관수군 (장영순권찰 아들) 과 설양전양 2월 15일 12시.

▲ 유호경군과 안희영양 (안원보씨 김석윤권사 딸) 2월 20일 12시.

▲ 김지훈군 (테헤란3구역) 과 김창연양 2월 27일 오후 1시.

▲ 차승철군 (삼성구역 차길조씨 양순님집사 아들) 과 허인숙양 (성남 4구역) 3월 1일 오후 2시.

▲ 조병철군과 조윤희양 (이재영권사 딸) 3월 1일 오후 2시.

▲ 채성원군 (제기구역 김정옥집사 아들) 과 한옥주양 3월 6일 12시 30분.

▲ 이선호군 (부천구역 이상덕권사 아들) 과 김은진양 3월 15일 오후 1시 30분.

▲ 채풍묵군과 박미자양 (보광구역 신순덕권사 딸) 3월 15일 오후 2시.

▲ 김덕일군 (김치길집사 윤봉옥 권사 아들) 과 최미혜양 3월 22일 오후 1시. 권사

▲ 김광선군과 조진화양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 정동헌군과 김부향양 (마경자집사 딸) 4월 5일 오후 1시.

▲ 윤봉한군 (행당구역) 과 김미화양 4월 5일 오후 1시 20분.

▲ 김용철군 (구로구역) 과 손현예양 4월 5일 오후 2시.

▲ 임대배군 (신일순씨 아들) 과 이현주양 4월 7일 12시.

▲ 백삼열군과 김덕희양 (선교찬양대원) 4월 10일 오후 1시.

▲ 박준일군 (박석진씨 전정우씨 아들) 과 이혜순양 4월 12일 12시.

▲ 한성호군 (찬양대원 박길순권사 아들) 과 장경옥양 (제3찬양대원 조담연권찰 딸) 4월 12일 오후 1시.

▲ 정재영군 (서옥권사 아들) 과 차의숙양 4월 12일 오후 5시.

▲ 이기웅군 (이원희장로 권순애권사 아들) 과 김연희양 (김창순씨 딸) 4월 15일 오후 1시.

▲ 윤갑현군과 구필희양 (쌍문구역) 4월 19일 오후 1시.

▲ 김남식군 (김태현집사 이금옥권사 아들) 과 최영춘양 4월 19일 오후 1시 30분.

별 세

▲ 김영금씨 (선림6구역 김춘자권찰 모친) 1월 15일 별세.

▲ 김춘봉씨 (평창구역 김원화집사 부군) 1월 17일 별세.

▲ 김춘화씨 (봉천구역) 1월 20일 별세.

▲ 이창규씨 (풍남3구역) 1월 21일 별세.

▲ 조명진씨 (응봉구역 김분연집사 부군) 1월 28일 별세.

▲ 장기주집사 (논현구역 권영재집사 부군) 1월 30일 별세.

▲ 마차순씨 (과천구역 유창화 박춘란씨 모친) 1월 30일 별세.

▲ 주경태씨 (역삼3구역 전계화권사 부군) 1월 31일 별세.

▲ 김성응씨 (연희3구역 김공식씨 모친) 2월 2일 별세.

▲ 박재운씨 (박채용장로 정소영전도사 부친) 2월 3일 별세.

▲ 이연예씨 (아현구역 양송구씨 모친) 2월 3일 별세.

▲ 송명섭집사 (송기홍장로 부친) 2월 7일 별세.

▲ 유묘순씨 (홍순형씨 모친) 2월 10일 별세.

▲ 이창근씨 (방배3구역 김복녀권사 부군) 2월 19일 별세.

▲ 유정숙집사 (성내구역 김영은집사 모친) 2월 19일 별세.

▲ 양은환씨 (아현구역) 2월 26일 별세.

▲ 천귀주씨 (역삼구역 고제화씨 시증조모) 2월 26일 별세.

▲ 김봉재권사 (노광현장로 모친) 3월 4일 별세.

▲ 노오봉씨 (방배구역) 3월 11일 별세.

▲ 이의현씨 (송인3구역 이계홍집사 부친) 3월 13일 별세.

▲ 김영식씨 (인천4구역 김봉선권사 장남 이선희집사 부군) 3월 16일 별세.

▲ 박숙영씨 (대치구역 윤보섭씨 부인) 3월 25일 별세.

▲ 김춘실씨 (방배3구역 홍낙관씨 부인) 3월 27일 별세.

▲ 이창숙권사 (동부이촌구역 유광재집사 처모) 3월 29일 별세.

▲ 이상열집사 (잔주구역) 3월 31일 별세.

▲ 김국선씨 (개나리구역 최상규장로 모친) 4월 2일 별세.

▲ 표계영씨 (선월3구역 표복자권찰 부친) 4월 3일 별세.

▲ 유복녀권사 (미아6구역) 4월 7일 별세.

▲ 유신숙권찰 (성산구역) 4월 8일 별세.

▲ 형경택씨 (도봉구역 형영숙씨 부친) 4월 11일 별세.

▲ 안 엘씨 (장위1-3구역 이귀례씨 시모) 4월 11일 별세.

3·4월의 행사

□ 당 회
4월 4일/3월 정기당회
□ 제직회
3월 2일/3월 정기제직회
4월 6일/4월 정기제직회
□ 구역권찰회
4월 1~18일/전반기 지역모임
4월 25일/제1차 교구별 전도
□ 예배위원회
3월 23일/성례식, 남·여전도회 헌신예배
3월 30일/부활절 축하음악예배
4월 28일~5월 2일/부흥사경회
□ 교육위원회
3월 1일/성경연구원 개강예배
3월 1~2일/직전부 수양회
3월 9일/중등부 학부모 초청좌담회
3월 17일/영아부 학부모 초청좌담회
4월 6일/새가정부 모범가정 초청좌담회, 직전부 회원특강
4월 27일/청년부 학생특강
4월 매주일/유치·초등·유년·소년부 전도집회
□ 전도위원회
3월 13일~5월 1일/70인전도요원훈련
3월 27일/70인전도 수료자 전원 상담요원훈련
4월 4일/구역일군 전도훈련
4월 5일/제3남전도회 충현동산 나무심기
4월 11·18일/총동원 전도
□ 북한선교위원회
3월 17~21일/충남 연합집회
3월 31일~4월 4일/사찰훈련
4월 25~26일/O.C.U (기독교장교회) 초청간담집회
4월 28일~5월 1일/전북 연합집회
□ 건축위원회
4월 8일/제3차공사 착공예배
□ 출판국
3월 11일/「교회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발행
3월 27일/「칭찬듣는 교회」 재판 발행
4월 12일/「성도의 가정」 발행

편집후기

○… 어리고 나약한 소년 다윗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맷돌 다섯 개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며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첫발을 내딛어 본다.

○… 고대하던 제3차 공사가 시작됐다. 이번호에는 3차공사에 따른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건축위원회부위원장 최석주 장로와의 인터뷰를 실었고, 착공예배시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위해 그날의 뜨거운 분위기를 스케치해 보았다. 특별히 건축위원장 임광식 장로의 간절한 기도도 실어 보았다.

○… 특별기고로 조인제 장로의 '순교자 조용학 영수'라는 새로운 자료를 찾게 됐다.

조인제 장로의 신친인 고 조용학 영수의 순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상태를 점검해 보게 된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열심을 더해 보기로 하자.

○… 교회내 각 기관에서는 월간충현에 실릴 각기관의 주요소식과 관계 유인물 및 사진들을 출판국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독자의 신앙간증·수필·제언등의 글도 많이 투고하여 보다 성도들과 밀접한 내용의 충현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6년 3·4월호

1972년 4월 30일 창 간
1986년 4월 23일 인 쇄
1986년 4월 27일 발 행

발 행 인/김 활 인
편 집 인/조 현 명
주 간/이 성 근
편 집 장/김 차 생
편집위원/김 원 남
조 영 길
김 장 근
이 음 선
조 선 근
손 경 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이모저모

▲제 3 차 공사 경쟁입찰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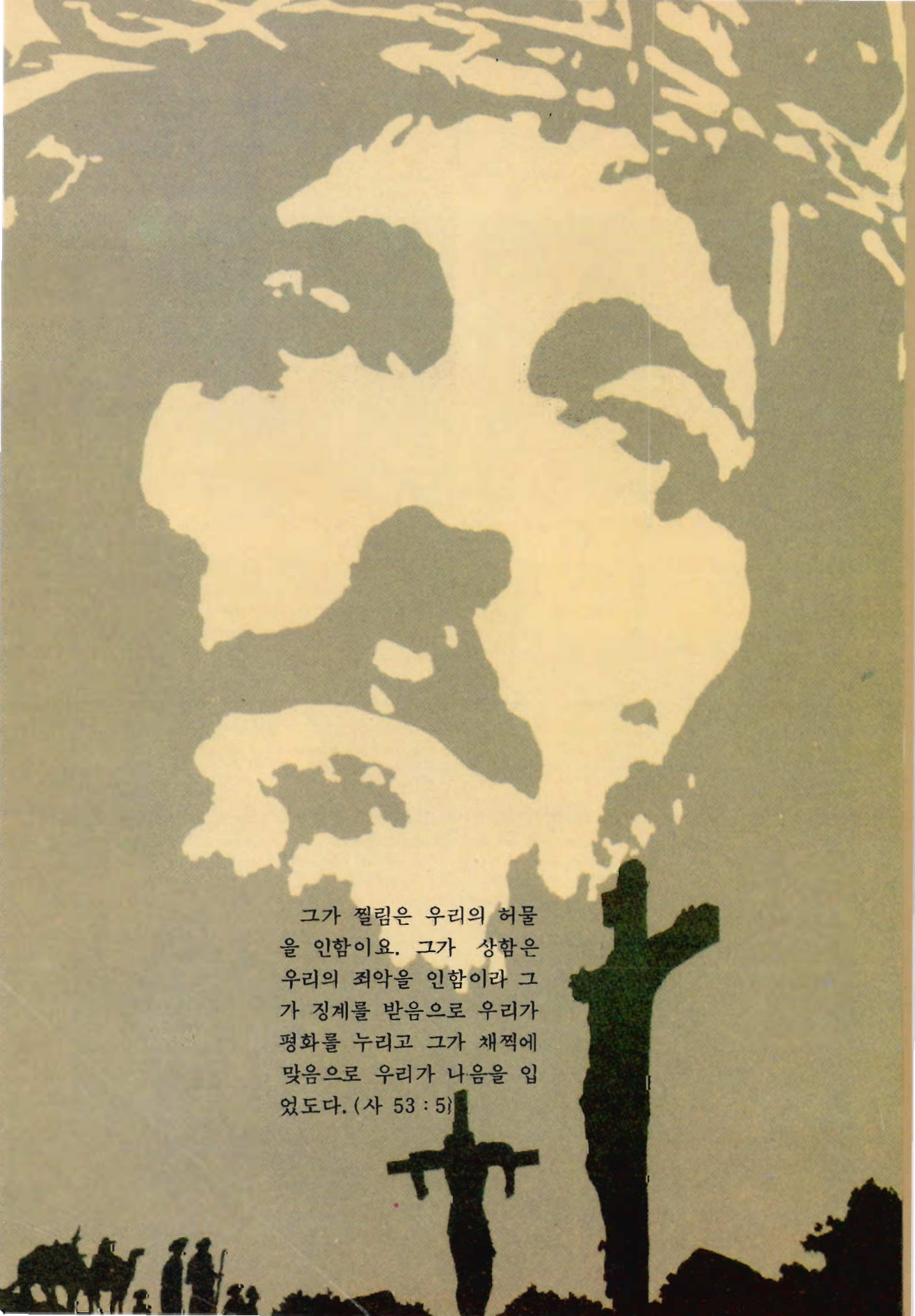
▲86 아시아경기시민봉사자대회에서 설교하시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

▲흥화공업주식회사와 3차 공사 계약체결 모습

▲신애복음선교회 제단을 북한선교원에 기증하는 현신애 권사

▲제 3 차 공사 착공예배 후 악수하시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와 최명환 사장

▲충현유치원 제 1 회 졸업식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 : 5)